

처녀(지) 겁탈 그리고 제국주의: 하디의 『테스』 다시 읽기

김 경 숙

차 례

- I. 머리말
- II. 『테스』에 관한 기존 비평
- III. 제국주의의 알레고리로서의 겁탈
- IV. 『테스』 그리고 제국주의
- V. 맺음말

I. 머리말

토마스 하디(Thomas Hardy)가 영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묘하다. 1840년에 출생하여 1928년에 사망하였으므로 물리적인 시간 자체도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와 20세기 모더니즘 시대를 모두 아우른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 기적 시대 구분을 넘어서서 하디의 작품세계는 얼핏 어느 한 시대의 소산물로 귀속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인다. 디킨스(Charles Dickens) 식의 면밀한 사회비판적 사실주의와도 구분되고, 그렇다고 조이스(James Joyce)나 울프(Virginia Woolf) 식의 의식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인물의 내면탐구와는 더 더욱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간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와 가장 많이 결부되어온 키워드는 “운명론/숙명론(fatalism)” 혹은 우주의 “내재적 의지(Immanent Will)”이다. 테스의 처형을 묘사하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러한 종류의 해석을 일정 부분 비준해주는 듯하다: “정의’는 행해졌고, 아이스킬로스의 말마따나 불멸의

신들의 왕은 테스에 대한 그의 장난을 끝마쳤다”(TD 330). 그리고 상당수의 논문들이 결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는 우주의 “내재적 의지” 속에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테스의 운명에 대하여 해석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의 위험성은 하디 작품의 인물과 사건들을 그 작품이 쓰인 시대적/정치적 토양으로부터 뿌리 뽑아 초역사적 진공상태 속을 유평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품 속의 모든 사건들은 사회적, 정치적 함의보다는 철학적, 초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예를 들어, 알렉에 의한 테스의 강간은 사회적, 계급적, 성적 문제이기보다는 초자연적 질서 앞에 무기력한 필멸의 인간으로서의 테스에게 이미 예정된 운명적 시련으로 해석될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하디와 『테스』에게 가해졌던 초역사적, 탈정치적 비평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품에 대한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재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테스가 겪는 강간을 제국주의적 맥락에서 다시 읽고자 한다. 물론 영국의 백인 여성인 테스에 대한 영국 백인 남성 알렉의 강간을 제국주의적 맥락에서 해석한다는 것은 자칫 어불성설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테스가 갖는 여성으로서, 이교도로서, 그리고 농민계층으로서의 성적, 계급적 하층민성(subalternity)을 고려한다면, 테스에 대한 알렉의 강간은 식민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스피박(Gayatri Spivak)이 주장하듯, 제국주의를 논하지 않고 19세기 영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¹⁾

작품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한”(pure and chaste) 여인으로 묘사되는 테스는 19세기의 이상적 여성상인 “집 안의 천사”(angel in the house)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더불어 동시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처녀지(virgin land)로서의 식민지 땅에 대한 은유로도 기능한다. 작품 초반부에서 테스와 에인절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흥미롭게도 하디는 에인절을 미국이건 호주건 신대륙 처녀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식민주의자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또한 알렉에게 겁탈당한 테스에 대한 에인절의 동정과 연민은 브라질로의 이주 계획을 통하여 드

1) “세 명의 여성의 텍스트와 제국주의 비판”(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에서 스피박은 “영국의 사회적 사명으로 이해되는 제국주의가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영국을 문화적으로 재현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19세기 영국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243).

러니듯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화의 구실로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성적 겁탈 자에서 종교지도자로 탈바꿈하여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제안하며 테스에게 칭찬하는 알렉은 제국주의적 침탈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하는 종교의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종교와 식민주의 사이의 공모관계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행해진 바 있다. 결국 테스가 알렉을 살해하는 행위는 종교와 정치라는 거대담론의 횡포 속에서 스스로 정의를 행하려는 하층민 혹은 처녀지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테스가 제단 위에 누워 잠드는 마지막 장면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층민 혹은 원주민이 종교와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요컨대 본 연구는 작품 『테스』 속에 나타난 겁탈을 제국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 읽으며, 19세기 내내 왕성하게 이루어졌던 식민지로의 이주와 기독교 포교라는 시대적 컨텍스트 속에 텍스트를 다시 위치시킴으로써 『테스』를 새로운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한다.

II. 『테스』에 관한 기존 비평

『테스』의 출간 직후에 발표된 대부분의 비평들은 작가 하디의 비관론과 엄세주의적 세계관이라는 주제적 접근, 혹은 작품 속 인물인 테스에 대한 분석 등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1895년 존슨(Lionel Johnson)은 그의 저서 『토마스 하디의 예술』(*The Art of Thomas Hardy*)에서 인간사회의 법칙을 초월하는 잔인한 자연의 법칙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자연의 계획은 워즈워드가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성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끊임 없는 고통이 그들을 기다리는 세계에 무방비 상태로 오기 때문이다. 자연은 인간의 법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 [...] 자연의 법칙은 잔인하다”(Elledge 391). 그리고 로렌스(D. H. Lawrence)는 『테스』에 관한 그의 논문 “토마스 하디 연구”(Study of Thomas Hardy)에서 작중 인물들 가운데 작용하는 무의식적 혹은 잠재의식적 힘들의 영향력을 언급하고, 테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녀의 “비인습적”(unconventional) 성향 때문이라 지적한다(Riquelm

397). 이렇듯 주인공 테스라는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춘 비평이 20세기 초반과 중반까지 주를 이루게 된다. 특히 호우(Irving Howe)는 『토마스 하디』(*Thomas Hardy*)라는 그의 저서에서 “테스 자신만큼 소설 속에서 중요한 문제는 없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철학적 함축도, 사회적 배경도 테스만큼 중요하지는 않다”(110)고 선언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이르면서 『테스』에 대한 비평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타게 되는데 이는 당시 각광받던 이론인 맑시즘과 페미니즘의 영향 때문이다. 먼저 마르크스주의와 유물론을 적용한 비평들은 소설 속에서 권력구조가 인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케틀(Arnold Kettle)의 『영국 소설 입문』(*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Novel*), 윌리엄즈(Raymond Williams)의 『디킨즈부터 로렌스까지의 영국 소설』(*The English Novel from Dickens to Lawrence*), 워튼(George Wotton)의 『토마스 하디: 물질주의 비평을 향하여』(*Thomas Hardy: Towards a Materialist Criticism*)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특히 케틀은 『테스』를 영국 농민계급의 몰락에 대한 하나의 우화로 읽는다. 이 때 농민계급으로서의 테스의 희생은 결국 토지가 아닌 제조업으로 부를 축적한 알렉에 의해 대표되는 새로운 계급에 의한 것임을 암시한다. 그리고 후기 맑시즘 관점에서 워튼은 계급의 문제와 젠더의 문제를 연결함으로써 테스의 운명이 역사적 과정의 부분을 재현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블룸(Jerome Blum) 역시 그의 논문 “소설과 유럽 농민”(Fiction and the European Peasantry)에서 시골 농업사회에서 도시 산업사회로의 이행이 당대의 농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언급하며(122), 농민들을 주인공으로 다룬 농촌 소설들은 유럽 농민계층에 대한 역사를 위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123).

다른 한 편, 20세기 중반과 후반 문학비평 분야를 강타한 두 번째 이론인 페미니즘은 여성인물을 전면에 내세운 하디의 『테스』에 대하여 수많은 페미니즘 논문들을 양산하게 된다. 예를 들자면, 자코버스(Mary Jacobus)의 “테스: 순수한 여성 만들기”(Tess: The Making of a Pure Woman), 풀(Andrian Poole)의 “남성들의 말들’ 그리고 하디의 여성들”(‘Men's Words’ and Hardy's Women), 보멜라(Penny Boumelha)의 『토마스 하디와 여성들: 성적 이데올로

기와 서사 형태』(*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실버만(Kaja Silverman)의 “『테스』에 나타난 역사, 비유, 그리고 여성적 주체성”(History, Figuration and Female Subjectivity in *Tess of the d'Urbervilles*), 가슨(Marjorie Garson)의 『하디의 진실성의 우화들: 여성, 몸, 텍스트』(*Hardy's Fables of Integrity: Woman, Body, Text*) 등을 위시하여 수많은 연구논문과 저서가 있다. 특히 누노카와(Jeff Nunokawa)는 “『테스』, 관광, 그리고 여성이라는 구경거리”(Tess, Tourism, and the Spectacle of the Woman)에서 하디가 독자를 관광객의 역할에 위치시키고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테스를 하나의 스펙테클로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며(재인용 Riquelme 400), 페미니즘 이론의 견지에서 하디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러나 보멜라는 오히려 하디가 젠더 간 관계를 전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테스라는 “알 수 없고 재현불가능한”(unknowable and unrepresentable)(121) 인물은 작가 하디와 그의 내러티브에 의해 완전히 포섭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때, 테스에 대한 “알 수 없고 재현불가능하다”는 설명은 하층민(subaltern)에 대한 스피박의 이론을 연상케 하는데 이렇듯 테스를 하층민으로서 접근한다면 젠더와 계급의 문제를 별개가 아닌 하나의 통합된 기표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로(Jules David Law)는 그의 논문 “잠자는 인물들: 하디, 역사, 그리고 여성적 몸”(Sleeping Figures: Hardy, History, and the Gendered Body)에서 후기 빅토리아시대 여인으로서 테스의 육체가 갖는 역사적 함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테스의 몸은 다양한 면에서 역사를 표현한다: 테스 자신의 개인적 궤도의 ‘잠재성’과 파열로서; 세대 간 역사적 단층선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후기 빅토리아 문화의 특정 조건, 모순, 압박 속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 『테스』에서 여성의 몸은 최고의 역사적 기표로서 페티시가 된다”(251, 253). 즉, 테스라는 인물은 개인으로서의 여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당대 사회와 역사와의 교차점을 충분히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은 『테스』에 대한 역사적 재해석의 기반을 닦아 준다.

상기된 『테스』에 대한 맑시즘과 페미니즘에 의한 접근은 하디의 소설을 사회적 맥락에서 접근하여 19세기 후반 사회에 대한 하나의 알레고리로서의 재해

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평들은 당대 19세기 중후반 빅토리아 시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인 인종주의와 영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주의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하듯 『테스』를 탈식민주의 이론의 렌즈를 통하여 재해석하는 것은 작품 해석의 스펙트럼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인종과 식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적 역사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담론에 의해 구성되는 것임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Ⅲ. 제국주의의 알레고리로서의 겁탈

소설 속에서 주인공 테스의 몰락과 살인 그리고 처형이라는 극단적 결말을 이끄는 데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인 “강간”에 대하여 역사적이고도 이론적/담론적인 접근을 시도할 때 작품 전체에 대한 탈식민주의적 재해석은 역동성을 담보할 수 있다. 사실 남성에 의한 여성의 강간은 식민주의적 정복과 유사한 맥락에서의 접근을 허락한다. 이때, 남성과 여성의 인종적 차이, 경제적/사회적 신분의 차이와 식민주의 맥락을 고려할 때, 강간이 갖는 담론적 의미의 스펙트럼은 확장될 수 있다.

조르주 비가렐로는 그의 저서 『강간의 역사』에서 앙시앵 레짐 하의 강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여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여자를 강제로 범한 자의 죄는 무겁다. [...] 처녀성은 정숙한 품행의 장식, 신성한 성의 상징, 가정의 평화, 보다 큰 우정의 근원이다. 즉, 처녀성의 존재는 결혼의 전제조건이어서, ‘능욕을 당한’ 여자는 어쩔 수 없이 ‘타락한’ 여자가 되어버리므로, 처녀성의 훼손은 명예, 신분, 목숨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된다. 따라서 사춘기 이전의 소녀에 대한 강간은 가혹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처녀성의 강탈’이 죄의 경중을 가늠하는 원칙이 된다. (25-6)

신분사회에서는 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신분에 따라 달라진다. 무

엇보다 희생자가 어떤 계층에 속하는가에 의해 그 죄의 경중이 가려진다. 반대로 강간을 범한 자의 빈곤은 행위의 심각성을 가중시킨다. (31-2)

비가렐로는 위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하고 있다. 앙드레 레짐시대의 강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의 심판이 희생여성의 “치녀성”과 “신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강간은 성적 쾌락의 추구라는 개인적인 맥락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것이 법이라는 담론을 통하여 재구성될 때, 힘의 논리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육체적인 쾌락의 추구뿐 아니라 약한 존재에 대해 우월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비가렐로 44).

코미사룩(Catherine Komisaruk) 역시 그녀의 논문 “강간의 서사, 강간의 침묵: 과테말라 식민지 시대의 성폭력과 재판 증언”(Rape Narratives, Rape Silences: Sexual Violence and Judicial Testimony in Colonial Guatemala)에서 강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실제 강간 사건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대부분 상징적인 수준에 머물러왔음을 지적하며, 사실은 강간의 희생자가 치녀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여부에 따라 강간범의 처벌이 결정되었음을 언급한다.²⁾ 결국 희생자로서의 여성은 강간범을 벌하기 위해서는 강간이라는 고통의 경험을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순결을 증명해야하는 이중적 고통 속에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법의 심판을 구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감내하는 일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성중심사회가 내린 여성성에 대한 편협한 스테레오타입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대목이다. 이렇듯 강간은 사회적, 계급적, 성적 힘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 더욱이 코미사룩의 논문 자체가 과테말라에서의 성적 범죄에 관한 분석이듯, 이 문제가 식민주의와 맞물리게 되면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디어(Sarah Deer)는 그녀의 논문 “강간 법의 탈식민화: 안전과 주권에 대한 원주민 페미니스트의 합성”(Decolonizing Rape Law: A Native Feminist

2) “바가스(Vargas) 재판에서처럼 미성년 여자와 섹스를 한 이유로 기소된 남성들에 대하여 법정은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상태였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무력에 의해서인가의 여부보다는 피해 여성들이 치녀였는지 여부를 더 강조한다”(377).

Synthesis of Safety and Sovereignty)에서 미국 내 강간의 희생자들 가운데 여성 원주민들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사실을 식민화로 인한 하나의 징후로 분석한다. 따라서 성폭력과 식민주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강간과 성폭력은 식민 정신상태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 강간은 식민화에 대한 은유 이상이다 - 강간은 식민화의 전부이다”(150). 그러나 문제는 강간에 관한 대부분의 미국 법률이 인종차별주의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사실상, 미국의 많은 강간법의 원천은 인종차별적이다 - 즉, 법의 눈으로 보면, 백인 여성만이 강간당할 수 있다. 더욱이, 원주민 여성들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백인의 법정에서 증언이 허락되었다”(150). 결국 강간은 식민주의와 같은 논리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강간은 식민화의 개인화된 명시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식민화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똑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강간에 대해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161).

사실 식민 지배의 역학관계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 구조와 유사하다. 식민주의자들은 이성, 진보, 우월한 도덕성, 힘을 가진 남성들로 간주되는 반면, 많은 경우 피식민지인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며, 열등하고 연약한 여성이나 아이들로 간주된다. 따라서 강한 남성이 약한 여성과 아이를 보호, 통치, 통제하는 것이 바로 식민지 이데올로기이자 대의명분으로 미화된다. 그러나 그 보호의 실체는 사실상 힘의 불균형을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식민주의자들은 식민지에 대하여 “치녀지”(virgin land)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자신들을 유혹하는 요염한 여인으로, 욕정을 해소시켜줄 로맨스와 관능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반면 피식민지인들은 강간희생자들이 겪는 심리와 유사한 끊임없는 불안감, 상실감, 자기부정이라는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스위틀로(Janice G.A.E. SWITLO)는 “오늘날 식민주의 - 원주민을 정복하려는 캐나다의 지속적인 시도”(Modern Day Colonialism - Canada's Continuing Attempts to Conquer Aboriginal Peoples)에서 강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정치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강간’의 정의는 다음을 포함한다: 타인을 성적 행위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것; 무력으로 잡거나 옮기는 행위; 약탈하거나 훔치는 행

위. 지역학교에 다니는 일부의 개인이 아닌 원주민 전체가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 정복이라는 이름 하에. . . ‘지배자 백인종’의 이론은 원주민에 대한 강간을 역사적으로 정당화했다. (103)

스위틀로의 정의에 따르면, 강간이라는 것은 식민화와 인종주의라는 맥락을 벗어나기 어렵다. 비슷한 맥락에서 수라니(Anna Suranyi)의 논문 “남성적인 터키인과 처녀 아일랜드”(Virile Turks and Maiden Ireland)는 정복과 지배에 나타나는 역학관계가 주로 젠더에 관한 담론으로 환치되는 일이 많았다는 전체 하에, 영국은 남성으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아일랜드를 비롯한 피지배국들은 여성으로 취급되는 일이 흔하였음을 지적한다(243, 244). 따라서 아직 식민화를 거치지 않은 땅에 대해서는 성적 매력을 발산하며 남성을 유혹하는 여성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베니스를 처녀에 비유하는 코리어트(Thomas Coryate)의 기행문을 보면 땅에 대한 묘사가 어떻게 여성성을 부여받게 되는지 알 수 있다: “그녀의 영예로운 미모에 반해 황제, 왕, 왕자, 험센 통치자가 그 처녀성을 빼앗기 위해 시도해왔을지라도, 이 고귀한 도시는 순수한 처녀 그리고 때묻지 않은 소녀처럼 1212년의 세월동안 그 처녀성을 잃지 않고 지켜왔다”(Suranyi 재인용 246). 비슷한 맥락에서 거논(Luke Gernon)이 1620년대의 아일랜드의 모습을 묘사한 “아일랜드에 관한 담론”(A Discourse of Ireland)이라는 산문 또한 아일랜드에 대해 여성성을 부여하는데, 흥미롭게도 글 속에 사용된 표현들은 테스의 외모를 묘사하는 표현들과 상당히 흡사하다:

아일랜드 요정은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푸른 피부를 지닌 젊은 처녀와 같다. 그 모습은 아주 아름답고, 부드러운 풀잎과도 같은 매끈한 피부를 지녔도다. . . . 그녀의 몸은 부드럽고 섬세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녀의 파란 혈관은 강물처럼 곳곳으로 흘러들어가는 도다. 그녀의 가슴은 젖이 흐르는 초목이 가득한 둥근 언덕이며, 아주 비옥하여 계곡과 경쟁할 정도였다. 그녀의 다리 사이로 (아일랜드는 은밀한 안식처로 가득 차 있기에) 열린 항구가 있지만, 찾는 이는 많지 않았도다. (249)

앞서 인용했었던 베니스에 대한 코리어트의 기행문과 상당히 유사하게 아일랜드 역시 식민주의자들을 유혹하는 처녀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렇듯 피식민지에 대한 젠더화는 종주국과 피식민국과의 비정상적인 지배의 관계를 남녀의 조화라는 자연의 섭리로 포장하고, 남녀의 조화로 인하여 생명이 수태되고 종족이 번식하듯 식민화 역시 사회발전과 문명화라는 긍정적 산물이 잇따르는 자연적인 과정으로 인식할 것을 강요한다.

강간과 식민주의의 상관관계를 전면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샤페(Jenny Sharpe)의 『제국의 알레고리: 식민 텍스트에 있어서 여성의 비유』(*Allegories of Empire: The Figure of Woman in the Colonial Text*)를 꼽을 수 있다. 샤페는 “이것은 강간에 관한 이야기다”(This is the story of a rape)라는 스캇(Paul Scott)의 “인도통치 4부작”(Raj Quartet) 중 첫 번째 소설인 『왕관 속의 보석』(*The Jewel in the Crown*)을 영화화한 텔레비전 시리즈에 대한 광고 구절로 자신의 저서를 시작한다. 샤페의 주장에 따르면 스캇의 이야기는 강간을 통해 식민화의 폭력성을 드러내는 반제국주의적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1). 특히 샤페의 논의에서 중요한 점은 인도남성에 의한 영국여성의 강간에 대한 두려움은 1857년 있었던 세포이(Sepoy) 반란을 진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던 사실이다:

1857년 폭동기에, 반란이라는 개념은 영국 여성을 겁탈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고, 세포이 반란은 순결한 백인 여성에 대한 야만적인 공격으로 기억되었다. [. . .] 인도에 정착한 영국인 커뮤니티는 그 반란에 대한 인종적 기억과 인도 남성들이 가하고 있는 백인 여성에 대한 성적 위협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 . .] 중요한 것은 강간이 반란을 통제하는 과정 속에서 고도의 이데올로기적인 의미가 부여된 비유법(trope)이라는 것이다. (2)

인도에서의 영국 식민정부의 위기는 강간당한 백인영국여성의 연약한 몸뚱아리에 대한 이미지를 유포함으로써 극복된다.³⁾ 결국 샤페의 이론에 있어서 강

3) 샤페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영국 권위의 위기는 식민주의에 대한 반역의 표시로서 겁탈당한 여성의 몸을 유포시킴으로써 관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국 여성은 인

간은 제국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조작되고 유포된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 그런데 만약 강간을 저지르는 사람이 백인이고 강간당한 몸뚱이가 원주민 혹은 하층민인 경우에는 어떠할까?

IV. 『테스』 그리고 제국주의

물론 샤피는 인도라는 확실한 식민 상황 이외에 영국이라는 중주국에서의 여성의 지위가 피식민지의 원주민과 유사한 인종적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피의 연구는 대부분 『제인 에어』(*Jane Eyre*), 『인도로 가는 길』(*A Passage to India*), 『왕관 속의 보석』(*The Jewel in the Crown*) 등 식민 소설에 대한 논의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런 점에서 테스를 탈식민 하위주체로 해석하는 김미경교수의 논문 “하디의 『테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테스 -”는 본 연구에 상당히 유용하다. 김미경교수는 테스를 탈식민여성 하위주체로 간주하며, “서구 백인남성 중심의 성 이데올로기 사회에서 해체되고 과편화된 주체들의 현란한 지적 유희가 아닌 새로운 사회와 인간을 창조하려는 주체로 탄생될 수 있다”(54)고 주장한다. 그리고 백인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알렉과 당대사회의 경제적, 계층적, 종교적, 성적 관행이나 억압체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상주의자 에인절은 당대 제국주의적 언술행위의 심볼로서 여성 하위주체인 테스가 겪는 억압과 비극보다는 식민주체로서 가한 억압을 특권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56). 그러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볼 때 테스는 “당시대 남성중심적 가부장제와 성 이데올로기에 의해 짓밟히고 능욕당하는 수동적 희생자가 아니라 당시대의 도덕률을 고발하고 비판하면서 가부장제 여성관으로부터 해방을 표출한 책임감 있고 능동적인 탈식민 하위주체의 여성”(69)으로 읽을 수 있다.

김미경교수의 논문에서는 식민주의의 맥락 속에서의 분석이 부각되지 않고

종에 대한 식민주의적 위계질서를 표현하는 중요한 문화적 기표로서 부상한다”(4).

있지만, 테스가 갖는 여성으로서, 이교도로서, 그리고 농민계층으로서의 성적, 계급적 하층민성(subalternity)을 고려한다면, 테스에 대한 알렉의 강간은 힘의 논리에 의한 식민주의에 대한 우화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테스에 대한 에인절의 동정과 연민은 브라질이라는 미개척지로 이주하여 개척하고자 하는 계획을 통하여 드러나듯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화의 구실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성적 겁탈자에서 종교지도자로 탈바꿈하여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계획하는 알렉의 변화는 제국주의에 대해 면죄부를 제공하는 종교의 이중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테스가 자신의 죽은 아들에게 직접 세례식을 집전하는 모습이나 알렉을 살해하는 행위는 종교나 정치라는 거대담론의 횡포 속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의를 행하려는 하층민/처녀지/원주민의 저항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겁탈 장면부터 살펴보자:

사방은 캄캄하고 조용하기만 했다. 머리 위에는 태곳적부터 자라온 체이스 숲의 주목나무와 떡갈나무가 드높이 솟아있었다. 그 나뭇가지에서는 새들이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새벽의 단잠을 즐기고 있었고, 그들 가까이에서 산토끼들이 살금살금 뛰어다녔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테스의 몸을 고이 지켜줄 천사는 어디에 있으며, 테스가 순진하게 믿고 있는 하느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비꼬기 좋아하는 티시베 사람의 신처럼, 테스를 지켜줄 신은 이야기에 열중하고 있었거나 무슨 일에 열주하고 있었거나, 여행중이었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비단결처럼 상하기 쉽고, 정말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이 아리따운 처녀의 몸에 마치 무슨 운명의 장난인 듯 어찌자고 저 더러운 무늬가 찍혀야 한단 말인가? (TD 62-3)

위의 인용에 나타나듯, 하디는 알렉에 의한 테스의 강간을 (초)자연적인 영역으로 모호하게 처리한다. 테스가 겁탈당하는 장소는 주목나무, 떡갈나무, 산새, 산토끼로 점철되는 자연의 공간이며, 겁탈을 당하는 테스는 흰 눈처럼 텅 빈 섬세한 조직으로 비유된다. 많은 비평가들의 하디의 작품 속에서 테스의 여성

성이 태초의 공간처럼 원초적으로 묘사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Gallagher 427). 더욱이 강간의 행위 자체에 대한 묘사가 생략되어 있어, 알렉의 겁탈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테스라는 한 여인의 몸뚱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체이스 숲이라는 땅을 향한 것처럼 보인다. 흥미롭게도 이는 토지에 기반한 귀족계층으로부터 제조업으로 축적한 부를 앞세운 신흥 부르주아 계층으로 19세기 말 영국의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물론 신흥 부르주아 계층을 대표하는 알렉 앞에 농촌의 하층민인 테스는 여전히 무력한 희생자일 수밖에 없다.

작품 속에서 “순수하고 순결한”(pure and chaste, *TD* 220) 여인으로 묘사되는 테스는 19세기의 이상적 여성상인 “집 안의 천사”(angel in the house)에 대한 스테레오타입과 더불어 동시에 아직 개척되지 않은 처녀지로서의 식민지 땅에 대한 은유로도 기능한다. 『테스』 작품 내내 하디가 테스를 반복적으로 새, 고양이, 도마뱀, 파리 등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많은 비평가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Rooney 475). 다시 말하자면, 테스는 한 인간으로서 묘사된다기보다 자연에 대한 메타포로서 묘사되고 있다. 작품 초반부에서 테스와 에인절이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흥미롭게도 하디는 에인절을 미국이건 호주건 미개척지를 개척하고자 하는 식민주의자의 모습으로 묘사한다:

현재 클레어가 자기가 속한 계급에서 벗어나 있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테스는 러시아의 피터 황제가 기술을 배우려고 조선소에 가서 일했던 것처럼, 클레어도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클레어가 젓을 짜는 일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유하고 번영하는 목장 주인이 되고, 지주가 되고, 농업가, 가축 사육자가 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앞으로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아브라함이 되어 왕처럼 소떼, 얼룩지고 무늬가 진 소들과 남녀 일꾼들을 거느리면서 살 것이다. (*TD* 106)

에인절은 특히 브라질에서 원주민들을 하인으로 부리며 농장을 경영하는 군주의 모습을 상상한다. 사실 19세기 후반 브라질은 노예제에 기반한 커피 플랜테이션이 한창이었으며 따라서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을 대거 환영하고 있었다.

이렇듯 작품이 진행되면서 테스를 소유하고자 하는 그의 욕구는 신대륙 처녀지에 대한 개척의 욕구와 맞물리며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난날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눈앞에 선하게 떠오르고, 테스를 가지고 싶었을 때, 그 생각 속에 그의 모든 계획과 말과 수단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는가를 클레어는 깨달았다. [...] 브라질 제국이 이민하는 농민에겐 안성마춤의 고장이라는 것을 선전하는 울긋불긋한 광고가 나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브라질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땅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었다. 브라질은 새로운 구상으로 클레어의 흥미를 끌었다. 그곳은 풍토나 사상, 습관, 법률이 다른 곳이므로 이 나라에서 테스와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도 그 나라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결국 그곳에서 테스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TD 218)

이렇듯 테스에 대한 욕망은 미개척지에 대한 야망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뒤섞인다. 그러나 하디는 이후에 브라질에서 고난을 겪는 에인절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피상적인 야망으로 식민지 개척에 뛰어드는 것이 갖는 위험성을 경고한다.⁴⁾ 앞서 테스와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부모님을 설득하는 장면에서 에인절은 “치녀처럼 순결한”(chaste as a vestal, TD 138) 테스를 때 묻지 않은 자연에 비유한 바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가씨는 살아있는 시라고 할 수 있어요. 시인이 종이 위에다 시를 쓴다며, 그녀는 실제 생활로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 . . 그리고 나무랄 데 없는 기독교인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께서 전도하고 싶어하시는 바

4) 하디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한편 그녀의 남편의 나날도 결코 편안한 생활은 아니었다. 요즈음 클레어는 브라질의 크리티바 부근의 진흙땅에서 폭우 및 그 밖의 고초를 겪고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브라질 정부가 제공하는 조건과 영국의 고지대에서 농사를 지으며 어릴 적부터 온갖 기후의 변화에 길들여 온 농민들이라면 브라질의 기후 변동에서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허망한 억측을 믿고 건너간 모든 영국인 농민이나 농장경영자들도 클레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곤경에 빠져 있었다”(TD 229). 1870년에 많은 수의 알제리 프랑스인들과 1880년에 2천 명 가량의 러시아인들이 브라질에 이민 가서 재난을 당한 것은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Elledge 229).

로 그런 사람들에 속하는 여자입니다”(TD 138). 에인절이 테스에게 프리포즈를 하는 장면은 에인절의 이러한 복잡한 욕망을 투영한다:

지난주일 목장에서 그 일이 있는 후로 줄곧 생각한 것인데 무척 중요한 문제를 말하겠소. 난 곧 결혼하려 해요. 난 농부니까 테스도 알다시피 나에겐 농사일을 잘하는 여자가 아내로 필요하단 말이요. 테스, 당신은 그런 아내가 되어 줄 수 없나요? (TD 144)

에인절의 프리포즈에는 낭만적인 사랑 고백 따위는 없다. 왜냐하면 에인절은 그저 불모지를 개척하려는 위대한 계획의 조력자가 필요할 뿐이며, 이러한 계획 속에서 테스의 존재는 하나의 물건처럼 자유롭게 옮겨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당신을 나의 소유물처럼 옮겨야 하오”(TD 170). 흥미롭게도 이러한 프리포즈는 『제인 에어』에서 인도로 선교를 떠나는 세인트 존(St. John)의 프리포즈와 상당히 유사하다.⁵⁾ 알렉이라는 육체적 약탈자로부터 테스를 구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에인절 역시 또 하나의 정신적 구속일 뿐이다:

클레어는 테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어느 새 그녀는 그의 태도와 습관, 말투, 기호 등등을 닮아가고 있었다. 만일 그녀를 농장에 남겨두고 떠난다면 그녀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그와 어울리기 힘든 결과가 될 것이다. 그밖에 그녀를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다. 클레어가 그녀를 국내이건 식민지이건 먼 곳으로 데리고 떠나기 전에 그의 부모는 부모된 심정에서 적어도 한 번 짚은 서로 대면하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TD 172)

태도와 습관, 그리고 언어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에인절과의 관계는 물리적 강탈로서의 일차적인 식민화 이후에 종교와 교육 그리고 문화를 통한 정신적 식민화의 과정을 상징한다. 이후에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테스는 “나는 참담한

5) “하느님과 자연은 당신을 선교사의 아내로 의도하였소. 그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고. 그들이 당신에게 부여해주는 정신적인 것이라오. 당신은 사역을 위해 태어났지, 사랑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오. 선교사의 아내가 당신은 되어야 하며 될 것이오. 당신은 나의 것이 될 것이오. 나는 당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이오.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위해서요.”(JE 464).

노예처럼 당신께 복종하겠어요, 비록 그 명령이 누워 죽는 것이라해도”(TD 193)라며 애원하지만 결국에는 버림 받는다.

이후에 성직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알렉은 에인절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백인의 의무를 물려받듯, 테스에게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제안하며 청혼한다:

당신이 크랜트리지를 떠난 후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그 집은 내 것이 되었소. 난 그걸 팔아가지고 아프리카로 가서 전도사업에 헌신할 작정이요. 내가 그런 사업에 아주 서투른 건 의심할 나위가 없소.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나의 의무, 말하자면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잘못을 나로 하여금 갚게 해주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내 아내가 되어 나와 함께 그곳으로 거주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이요. (TD 261)

흥미롭게도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계획하는 알렉의 모습은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 있는 에인절의 큰 누이를 연상시킨다.⁶⁾ 더욱 흥미로운 점은 알렉이 성직자로 탈바꿈함에 있어 에인절의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알렉은 자신의 개종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서 에인절의 아버지에게 받은 편지를 테스에게 보여준다: “편지에는 클레어 목사가 더버빌의 옛 행실을 기꺼이 용서한다는 약속과 함께 그의 장래 계획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쓰여 있었다”(TD 259). 에인절의 아버지에게서 면죄부를 부여받은 알렉은 제 3세계로 선교를 떠나는 성직자의 모습으로 손색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을 거부하는 테스를 지배하려는 알렉은 억지로 그녀를 겁탈했던 과거의 모습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봐요, 내가 한때 당신의 주인이었다는 걸 똑똑히 기억해달라는 거요! 난 다시 당신의 주인이 되고 말겠어.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해도 당신은 내 것 이야!”(TD 275)

이렇듯 알렉과 에인절은 테스를 사이에 두고 삼각형 구도를 그리며 공통적으로 테스를 욕망한다는 점에서 서로 교환가능한 역할을 맡는다. 흥미롭게도

6) “그들 머리 위에는 에인절의 누나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이 집안의 맏이이며 에인절보다 열 여섯 살이 위인 그녀는 선교사와 결혼해서 지금은 아프리카에 가 있었다”(TD 132).

육체적 고통에서 성직자로 거듭난 알렉과 성직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식민지 개척자의 모습을 추구하는 에인절은 서로의 거울 이미지를 구성하며, 식민주의의 실질적, 정신적 층위를 상징한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식민주의 그리고 기독교 포교 사이의 불가분의 공모관계를 드러낸다.

V. 맺음말

하층민으로서의 테스의 상징성은 고통의 희생자가 된다는 것 말고도, 에인절에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편지를 쓰지만 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하층민은 말할 수 없다”(The subaltern cannot speak) -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말을 하지만 들리지 않는다 - 는 스피박의 지적처럼 테스의 목소리는 에인절에게 전하여지지 않는다. 알렉을 살해하는 테스의 행위 또한 분명 충분히 저항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 자체는 생략되고 천장에 스며든 핏자국으로 대체된다. 테스가 알렉을 살해하는 행위는 종교와 정치라는 거대담론의 횡포 속에서 스스로 정의를 행하려는 하층민 혹은 처녀지의 저항으로 볼 수 있지만 테스가 체단 위에 누워 잠드는 장면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층민이 종교와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한다.

알렉을 살해하고 에인절과 함께 도주 중이던 테스는 여동생 리자루(Liza-Lu)가 에인절의 아내로서의 자신의 자리를 대신해줄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애는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청순해요. 오, 에인절, 만일 제가 죽거든,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예요, 그애하고 결혼해 주시면 좋겠어요. [...] 에인절, 만일 당신이 그애를 잘 가르쳐 길들이고, 당신 마음에 들도록 키우신다면!”(TD 326) “순진하고 순수한”(simple and pure) 리자루는 “순수하고 순결한”(pure and chaste) 테스를 대체한다. 그리고 테스가 그러했듯 리자루 역시 에인절의 목적에 맞게 “훈련”(train)되고 “양육”(bring up)될 것이다. 결국 테스는 개인으로서 혹은 주체로서 존재한다기보다는 하층민이라는 계층을 대표한다. 그리고 이러한 하층민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로 대체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식민주의자로서의 에인절 그리고 선교사로서의 알렉과 공존한다고 하층민으로서의 테스를 착각하게 만드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영국이라는 공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테스가 사는 시골 농가와 근대화를 겪어 온 도시 런던을 아우르는 막연한 공동체의식 즉 민족주의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장에서 젓소의 젓을 짜며 테스는 자신이 짠 우유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젓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런던 사람들의 아침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에 감격한다:

‘런던 사람들은 내일 아침 식사 때 저 우유를 들겠지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들이 말예요. [. . .] 생전 젓소도 보지 못한 귀족들, 대사들, 장군들, 귀부인들, 그리고 상점의 안주인들과 어린애들이 마시겠지요? [. . .] 그 사람들은 우리가 누군지, 저 우유가 어디서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 두 사람이 우유를 기차시간에 대어 보내려고 비를 맞으며 밤에 벌판을 몇 마일씩이나 달려온 것도 생각 못하겠죠? (TD 157-8)

위의 인용은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상상의 공동체』(Imagined Communities)에서 상술한 민족주의의 형성과정을 연상시킨다.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영국”이라는 공간적 테두리 속에서,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는 인식은 그 국가의 존속을 위하여 목숨도 기꺼이 내놓게 만드는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집단 무의식을 이루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무의식 속에서 테스는 브라질 개척의 야망에 사로잡힌 에인절과 아프리카로의 선교를 계획하는 알렉을 끌어안게 되는 것이다. 결국 『테스』에서 주인공 테스가 겪는 겁탈과 착취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처녀지 개척과 기독교 포교라는 제국주의의 사명이 갖는 허울을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으며, 동시에 민족주의라는 거대한 상상의 소용돌이 속에 제국주의적 기획이 하층민성을 어떻게 “겁탈”하였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김미경. "하디의 『테스』에 나타난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테스." 『영어영문학연구』 33 (2007): 53-71.
- 비가렐로, 조르쥬. 『강간의 역사』 서울: 당대, 2002.
- Blum, Jerome. "Fiction and the European Peasantry: The Realist Novel as a Historical Source."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26 (1982): 122-139.
- Boumelha, Penny. *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Totowa: Barnes, 1982.
- Britton, Hannah. "Organising against Gender Violence in South Africa." *Journal of Southern African Studies* 32 (2006): 145-163.
- Brontë, Charlotte. *Jane Eyre*. New York: Penguin Books, 2006.
- Deer, Sarah. "Decolonizing Rape Law: A Native Feminist Synthesis of Safety and Sovereignty." *Wicazo Sa Review* 24 (2009): 149-167.
- Elledge, Scott. *Tess of the d'Urbervilles: An Authoritative Text, Hardy and the Novel Criticism*. New York: Norton, 1979.
- Gallagher, Catherine. "Tess of the d'Urbervilles: Hardy's Anthropology of the Novel." *Tess of the d'Urbervilles: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John Paul Riquelme. New York: St. Martin's, 1998. 422-440.
- Garson, Marjorie. *Hardy's Fables of Integrity: Woman, Body, Text*. Oxford: Clarendon, 1991.
-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New York: Norton, 1979.
- Jacobus, Mary. "Tess: The Making of a Pure Woman." *Tearing the Veil: Essays on Femininity*. Ed. Susan Lipshitz. Boston: Routledge, 1978. 77-92.
- Komisaruk, Catherine. "Rape Narratives, Rape Silences: Sexual Violence and Judicial Testimony in Colonial Guatemala." *Biography* 31

- (2008): 369–396.
- Law, Jules David. "Sleeping Figures: Hardy, History, and the Gendered Body." *ELH* 65 (1998): 223–257.
- Nunokawa, Jeff. "Tess, Tourism, and the Spectacle of the Woman." *Rewriting the Victorians: Theor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Gender*. Ed. Linda M. Shires. New York: Routledge, 1992. 70–86.
- Poole, Adrian. "'Men's Words' and Hardy's Women." *Essays in Criticism* 31 (1981): 328–344.
- Riquelme, John Paul. *Tess of the d'Urbervilles: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New York: St. Martin's, 1998.
- Rooney, Ellen. "A Portion of the Field: 'A Lesser Creature Than a Woman.'" *Tess of the d'Urbervilles: Case Studies in Contemporary Criticism*. Ed. John Paul Riquelme. New York: St. Martin's, 1998. 475–483.
- Sharpe, Jenny. *Allegories of Empire: The Figure of Woman in the Colonial Text*. Minneapolis: Minneapolis University Press, 1993.
- Spivak, Gayatri. "Can the Subaltern Speak?"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Eds. Cary Nelson and Lawrence Grossberg. Champaign: U of Illinois P, 1988. 271–313.
- . "Three Women's Texts and a Critique of Imperialism." *Chicago Journals* 12 (1985): 243–261.
- Suranyi, Anna. "Virile Turks and Maiden Ireland: Gender and National Identity in Early Modern English Travel Literature." *Gender & History* 21 (2009): 241–262.
- SWITLO, Janice G.A.E. "Modern Day Colonialism -- Canada's Continuing Attempts to Conquer Aboriginal Peoples." *International Journal on Minority and Group Rights* 9 (2002): 103–141.

Abstract

The Rape of the Virgin (Land) and Imperialism: Re-Reading Hardy's *Tess*

Kyoung-sook Kim

This study aims to transcend the limitations of ahistorical/apolitical criticism exerted on Hardy's *Tess* and reinterpret the text anew from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perspectives. In particular, I will reread Tess's rape in the context of imperialism. This rereading might sound illogical because both the criminal and the victim of this rape are white. However, considering the subalternity Tess is yoked to as a female, pagan peasant, it is more than probable to read Alec's rape of Tess as an allegory of colonization.

Tess described as "pure and chaste" along with the stereotype of the so-called "angel in the house" can function as a trope for the virgin land of colonies. The text *Tess* introduces Angel as a colonizer with an ambition to cultivate the virgin land whether America or Australia. Angel's pity and sympathy for Tess can be interpreted as a pretext for justifying colonization as his plan to emigrate to Brazil represents. Moreover, Alec, transformed from a sexual rapist into a religious converter, reveals duplicity of religion providing indulgencies to colonial penetrations.

Tess's murder of Alec represents the resistance of the subaltern who dispenses justice in spite of violences of master narratives such as religion and politics. However, the last scene in which Tess falls asleep on the altar reinscribes the fact that the subaltern or the indigenous cannot but be made into victims of religion, imperialism, and even nationalism.

Key words: Tess, rape, imperialism, religion, subaltern, nationalism

테스, 강간, 제국주의, 종교, 하층민, 민족주의

논문접수일: 2012. 04. 30

심사완료일: 2012. 05. 21

게재확정일: 2012. 06. 15

이름: 김경숙

소속: 안양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이메일: jjoyce10@anyang.ac.kr